신년사 영상메세지

계사년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합니다. 하늘은 남과 북을 가르지 않고 태양은 산하대지에 고르게 찬란한 빛을 내려 만물을 생장하게 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생명의 기운을 맘껏 발휘하면서 뭇 생명들과 조화와 상생의 꿈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비움과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움과 나눔은 곧 지혜와 자비의 일상적 구현이며 수행과 보살행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세상은 늘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속도와 경쟁, 이기적 욕망의 충족 때문에 투쟁합니다. 비움이란 곧 이러한 생각과 삶의 행위가 부질없고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올바르지 못한 가치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동체대비는 곧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욕망과 집착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으며,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부족해도 나누고 많아도 나눌 수 있는 보시의 자비행입니다. 불자 여러분 진정한 보살행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합시다.